



집콕 청년 수십만 명, 종합적인 사회 복귀 대책 가동해야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민족 최대 명절 설날(1월 22일)도 지나갔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거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아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옷도 곁에 입고 선물을 들고 고속도로의 정체도 마다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낸 분들이 많다.

나는 고향에 가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아이들도 적고 청년은 더욱 없고 나이드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마을이 조용하고 한적하다는 것이다. 일년에 여러 차례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나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공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눈에 크게 띄었다.

청년 5513명과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및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중 4.5% 12만9000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자가 6개월이 넘는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외에 만나는 사람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고립' 생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 생활 실태를 조사해 추산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고립 또는 은둔 청년이 61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남의 일로만 알았던 일본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대개 어려서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로는 취업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55.6%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며,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비율도 7%나 된다.

고립·은둔 청년 중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한 자가 5년이 넘는 사람이 10명 중 3명(28.5%), 1년 이상은 10명 중 7명(73.3%), 6개월 이상은 10명 중 9명(85.2%),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라고 하니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 중 첫 취업에 3년 이상 걸린 사람은 올 5월 기준 3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에 2년 이상~3년 미만(27만5000명)이 걸린 사람을 포함하면 첫 구직에 2년 이상 소요된 청년은 63만3000명이었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방치할 경우 개인적 불행은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이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 응한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이 외톨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구직 단념자, 청년 무직자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한 명도 없게 할 수는 없다. 니트족 생활이 길어질수록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높다.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니트족도 한 해 8만4000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민태원(閔泰源, 1894-1935, 우보 牛步)의 유명한 수필 '청춘예찬'이 생각난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중략).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 보내는 것은 청춘의 꽃은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우자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날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 (중략).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 보내는 것은 청춘의 꽃은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우자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날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 (중략).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다.'

뜨거운 피, 불타는 열정, 원대한 꿈, 역동적인 돌파력으로 충만되어야 할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 청년들이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패,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상처받고 신용하면서 외톨이가 되고 절망감과 무기력감, 원망과 자학(自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가족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청년 고용문제는 개인 문제도 되지만 사회적 책임도 큰 문제이기때 특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심리 상담과 사회 복귀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단단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칼럼

철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의 아이콘

지용태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장



2004년 개통한 고속철도는 획기적인 이동의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전국을 반나절로 이용 가능케 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출장 패턴의 변화와 당일 여행을 확산하는 등 대중적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받으며 고속철도 수요가 적잖은 감소를 가져왔다.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25%이상이 이용고객이 줄었다. 이는 영업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상태의 적신호를 끼치는 등 지역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부하기에는 아쉬움이 컸던 한해였다.

다행히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약 14만 여명의 고객들께서 열차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을 다녀가셨다.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로 항공과 도로의 이용이 정체를 보인 것에 비하면 회복세가 빠른 편이다.

이는 평소보다 42회를 증편운행 하는 등 총 889회의 열차를 운영함으로써 With 코로나19 시대를 사전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휴기간 중에 철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4인기준 자동차로 이용했을 때보다 약 30배 정도의 탄소배출량 감축시켰기 때문에 친환경운동에 동참했음을 자부하시도 좋을 것이다.

철도는 환경친화적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열차는 기존 디젤기관차에 객차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동력분산식 고정열차로 운행할 것이다. 빠르면 3월부터 기존의 무궁화호를 대체한 EMU-150이 전라선과 호남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EMU-150은 전기를 에너지로 이용한 동력분산식 차량으로 가감속 능력이 뛰어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순천~진주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KTX이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부산까지 2시간 30분 걸리던 운행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부산이 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음은 물론 동서 화합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에서 오후에 출발, 부산에 도착하여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먹고 당일 저녁에 여유있게 돌아오는 여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실천을 나아가 친환경 실천을 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권에서의 우리 지역의 방문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철도문화를 선도할 것이며 아울러, 금년 4월에 시작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고

기고

노인 관련시설, 화재예방에 관심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인 훈련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층·구역별 관리자들이 소화기, 옥내소화전 및 피난시설 등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 피난 시 행동요령을 숙달토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 피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이 훨씬 높는데 그 중 요양원 등 노인시설은 화재피해가 정말 클 수 있다.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가 많고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시 상황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져 화재 예방 및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표적 사례다. 숨진 사람들은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다수였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치료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피난하도록 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들은 연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노인요양시설도 늘고 있다. 다수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일반대상물과 다르다.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물에 비해 피난약자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화재진압 훈련만큼이나 대상물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자체적

또한 구역별 간호사 1~2명의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야간 병동 같은 경우 화재 발생 시 근무자 각 병실을 돌며 모든 환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평군 연령이 높아지면서, 피난 약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전에 화재를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한자성어처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올 겨울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효로 63 2층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